



가정통신문



제 목

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

담 당

학생부

☎ (063) 546-2772

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

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최근 SNS상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‘대리입금’(일명 ‘댈입’, ‘랜덤박스’, ‘랜덤봉투’ 등), 개인정보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학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불법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법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1. 대리입금(‘댈입’, ‘랜덤박스’, ‘랜덤봉투’ 등)

1. 현황

-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, 연예인 기획상품,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(2~7일간)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**20~50%(연이자 1,000%)**를 수고비로 요구하고, 상환이 늦을 경우 **시간당 1,000원~10,000원의 지각비(연체료)**를 부과합니다.
-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**개인정보를 요구**하고 **불법추심**을 하거나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이 **고리대금 형태로 친구 돈을 갈취**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**학교폭력**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

2. 유의사항

- ① 대리입금은 고금리 소액 사채이고, 피해 시 구제가 어려우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.
- ②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해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.

3. 대응요령

- ① 피해발생시 반드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하세요!
- 대리입금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**학교전담경찰관(SPO : School Police Officer), 선생님,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**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를 바랍니다.
- 금융감독원 「**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**」(☎1332-3번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
- 피해학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② 「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」을 적극 활용하세요!

- 개인정보 노출시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「파인」(<http://fine.fss.or.kr>)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, 카드발급 등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가 제한되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2. 내구제대출(휴대폰깡)

1. 현황

- '내구제대출'('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'이란 뜻)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,
 -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수 배~수십 배의 통신요금(기기 할부금, 소액결제 등)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개통된 휴대폰을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유의사항

- ① 휴대폰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현금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닙니다.
- ② 타인의 통신용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.

3. 대응요령

- ① 피해발생(우려)시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고, 추가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!
 - 금융감독원 「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」(☎1332-3번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-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증 자료를 구비하여 가까운 파출소·경찰서(☎112)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「명의도용방지서비스」(www.msafar.or.kr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소액결제 차단·휴대폰 이용정지 등을 각 통신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2023. 6. 22.

김 제 서 고 등 학 교 장